

치솟는 연료비에 지구촌 곳곳 몸살

성난 민심 생활고 호소 거리로

에콰도르·가나 등 정권 흔들

극빈층 규모 눈덩이처럼 불어나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연료비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지구촌 곳곳이 신음하고 있다.

성난 민심이 생활고를 호소하며 거리로 나서는 가 하면 치솟는 연료비에 전력 자체에 접근할 수 없는 극빈층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연료비고 공행진이 각국의 경제는 물론 정치권과 사회안전망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연료비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면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서고, 이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은 더 가혹하다.

최근 남미 에콰도르에서는 연료비 급등에 따른 생활고 등을 호소하는 원주민 주도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휘발유 가격을 인하하고 저소득층 대상 유류비 지원 대책을 내놨다.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연료비 급등과 인플레이션, 세금 정책 등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 경찰이 최루탄과 고무총을 겨누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리비아에서도 생활고에 성난 시위대가 동부 토브루크 지역에 있는 의회에 난입하고 건물에 불을 질렀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은 전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미용사들이 손님 머리를 자르기 위해 휴대전화 불빛을 사용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가게 전등을 켜기 위한 발전기를 가동할 만큼 휘발유를 구할 수 없어서다.

최근의 연료비 급등 현상은 세계 최대 연료 수출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에 맞서 공급량을 감축하면서 심화한 측면이 크다.

이에 주로 러시아산 연료 의존도가 높은 유럽 등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은 국가들에게도 불뚱이 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연료비가 경쟁적으로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이다.

가령 러시아산 석유 의존도가 매우 낮은 편에 속

하는 필리핀 마닐라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미니버스의 일종인 지프니(지프를 개조한 10인용 합승차) 운수회사를 운영하는 디오네 다올라(49)씨는 한때 회사에 소속된 기사가 100명 정도였지만 현재는 3분의 1 수준인 32명 정도만 남아 있다고 NYT에 전했다. 그만둔 이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행인들에게 구걸하는 신세가 됐다고 한다.

그는 “연료비가 오르기 전에는 하루에 15달러 정도 벌었지만, 지금은 4달러뿐”이라며 “이렇게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기존보다 약 9000만명 가량이 추가로 전력 소비 자제를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미 코넬대 교수는 “에너지 가격과 식량 가격의 동반 인상은 거의 모든 나라의 빈곤층에는 치명타”라며 “장기간 지속되면 지구촌 곳곳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티 비틀 IEA 사무총장은 “높고 불안정한 에너지 가격은 몇 년 간 이어질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연료 가격이 떨어지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전 세계적 경기 침체’ 외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포르투갈 공군 창설 70주년 기념 에어쇼 포르투갈 공군 소속 항공기가 3일(현지시간) 남부 베자에 위치한 베자 공군기지에서 창설 70주년 에어쇼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 리시찬스크 점령... 젤렌스키 “되찾을 것”

우크라 동부 루한스크주 최후 거점

러시아군과 친러 분리주의 세력에 이어 우크라이나군도 3일(현지시간) 동부 루한스크주(州) 최후 거점인 리시찬스크를 러시아 측에 빼앗긴 사실을 확인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술적 후퇴일 뿐”이라며 “신형, 장사정 무기를 확보하는 등 준비가 되는 대로 탈환전에 나설 것”이라고 국민에 약속했다.

영국 BBC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오후 러시아군이 리시찬스크를 장악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자는 “거센 전투 끝에 우크라이나군이 기존에 차지했던 거점과 전선에서 부득불 물러나게 됐다”면서 포병·항공 전력은 물론 병력에서도 열세인 까닭에 “병사들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철수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루한스크주 전역을 장악하게 됐다. 러시아가 올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쟁 목표 중 일부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단기간에 점령하려 했지만 출진 끝에 패퇴하자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전 지역의 ‘해방’으로 목표를 재설정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루한스크에서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화상 연설을 통해 “리시찬스크에서처럼 적의 화력이 훨씬 우세한 전선의 특정 지점에서 우리 군 지휘관들이 병력을 후퇴시켰다면 그건 단 한 가지만을 의미한다”면서 “우리는 전술 보강과 현대적 무기 공급 증가에 힘입어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군이 돈바스 전선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미국이 제공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등 장사정 병기를 활용해 반격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는 그 땅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서 총격 사건 3명 사망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의 쇼핑몰에서 3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 로이터, AP 통신이 경찰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웃나라 노르웨이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이 부상당한 지역 일주일 만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4일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소렌 토마센 코펜하겐경찰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하고 부상자 가운데 3명은 중태라고 밝혔다.

토마센 경찰청장은 “사건 직후 현장에서 22세 덴마크 남성을 체포했다”며 “체포 당시 이 남성은

소총과 탄약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백인 남성이 범인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공범이 있다는 징후는 없다”며 단독 범행에 무게를 댔다.

토마센 경찰청장은 “총격 사건의 동기를 추측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테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총격이 발생한 곳은 코펜하겐 도심과 공항 사이에 있는 아카데미 지역에 있는 대형 쇼핑몰인 필즈몰로, 일요일을 맞아 많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는 쇼핑몰 안에서 총을 발사했다. /연합뉴스



홍수로 물에 잠긴 방글라데시 거리 홍수로 물에 잠긴 방글라데시 북동부 수남간지의 한 거리를 릭사(삼륜차)가 지나가고 있다. 방글라데시 당국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홍수의 영향을 받은 지역 64개 중 27개 지역에서 102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미국 의사당 폭동 사태 트럼프 기소 가능성

미국 하원 1·6폭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의견을 낼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 의원은 지난해 1월 6일 미국의 연방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 3일(현지시간)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특위 청문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필요성을 보여줬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체니 의원은 최종 결정권이 법무부에 있다면서

도 특위가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기소를 의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하원의 의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1·6 의사당 폭동 직전 연설에서 지지층을 향해 “죽기로 싸우라”며 의사당으로 행진할 것을 독려해 폭동을 선동했다는 혐의 의회 조사는 물론 법무부 수사 대상에도 올라 있다. /연합뉴스

1260억 들여 5년 수리 영국 '빅벤' 다시 올린다

영국 런던을 상징하는 거대한 4면 시계탑 '빅벤' (Big Ben)이 다시 올린다. 3일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빅벤은 5년간의 수리를 마치고 올 여름 다시 웅장한 종소리를 울린다. 빅벤이라는 이름은 엄밀히 말하면 영국 국회의사당 부속 종탑에 달린 151짜리 시계를 뜻하는데, 워낙 이름이 유명하다 보니 시계탑까지 통칭하는 의미로 쓰인다. 시계탑은 2012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즉위 60주년(다이아몬드 주빌리)을 기념해 '엘리자베스 타워'라는 공식 이름을 얻었다. 빅벤은 2017년 8월 21일 정오 타종을 끝으로 긴 침묵에 들어갔다. 빅벤은 1859년 설치된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수리를 받았다. 빅벤 관리 당국은 3500여 개 부속과 철 지붕을 모두 분해해 지상에서 수리를 마쳤다. 수리에는 8000만 파운드(약 1260억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빅벤은 수리 중이던 2019년 11월 11일 현충일과 2020년 새해에는 특별히 종을 울렸다. 빅벤의 일주일간 시간 오차가 불과 1초 이내라는 사실은 건축 당시인 19세기 첨단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한다고 NYT는 전했다. /연합뉴스

상무지구(상가매매)	당진(신축)원룸매매	경매교육【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p>1) 감정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용 4억가)</p> <p>2) 월수익 350만 (보 4천)</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시비없음,시설완비)</p>	<p>월수익 750만 연수익 9천만 매매14억5천(용7억)</p> <p>▶ 임대관리 직접해드릴 10년간 임대걱정 없음.</p> <p>대산항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엘지정유,입주및공사시작 엘리베이터있음, 주인세대있음.</p>	<p>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p> <p>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p> <p>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p>
		<p>광주</p> <p>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p> <p>광주 광산구(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p> <p>광산구 장덕동(아파트)▶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p> <p>서구 매월동(임야)▶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p> <p>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p> <p>서구 치평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p> <p>동구 운림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p> <p>전남</p> <p>장성군 서삼면(농지)▶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p> <p>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p> <p>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p> <p>다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p> <p>시외</p> <p>경남 김해시(숙박시설)▶ 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p> <p>전남 영암군(근린시설)▶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p>

010-6670-9800 (062-382-5500)